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NOTE

- 경제 이슈
 - 중국 경기 혼조세
 - 고용시장 회복세 지속
- 경영 노트
 - 미국 자동차 업계 부활의 3대 비결
- 사회 트렌드
 - 요즘 뜨는 '페이크 패션'
- 저널 브리프
 - 직원들이 리더를 믿지 않는 7가지 이유
- 洗心錄
 - 덕필고 필유린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경기 혼조세

-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10일 산업생산, 소매판매, 투자 등의 통계를 발표. 최근 중국 경기전망에 대한 낙관론을 축소시키며, 소매판매 호조속 생산 및 투자의 둔화에 따른 경기 혼조세가 나타남
 - 산업생산 :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8월 10.4%, 9월 10.2%, 10월 10.3%, 11월 10.0%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었고 11월 사전 전망치 10.1%를 하회하였지만, 4개월째 두 자리 수 증가율을 유지
 - 소매판매 : 11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 의약품(20.6%), 통신장비(39.8%), 가구(24.8%) 등의 판매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짐
 - 투자 : 2013년 1~11월 전국고정자산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9.9% 증가하여 전월의 20.1%와 사전 전망치 20%를 모두 하회. 2003년 이후 20% 선을 처음으로 하회하면서 1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
- 중국 경제가 하향안정화 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경제 성장 전략을 전환하는 현상이 나타남

□ 고용시장 회복세 지속

-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취업자는 고령층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58.8만명 늘어 올해 들어 처음 50만명대를 기록
 - 고용지표 동향 : 11월중 신규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8.8만명 늘어 2012년 9월 68.5만명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 대비 0.7%p 증가
 - 산업별 : 제조업의 신규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3.5만명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서비스업의 신규취업자 역시 보건·복지(21.8만명), 숙박·음식(13.3만명), 공공행정(7.1만명)를 중심으로 59.8만명 증가
 - 연령별 : 청년층(15~29세)의 신규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5.2만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신규취업자가 51.2만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를 견인. 다만 30대 신규취업자수는 3.6만명 감소
- 향후 시간제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국내 및 세계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분간 국내 고용의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

□ 미국 자동차 업계 부활의 3대 비결¹⁾

-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금융위기 이후 불과 5년 만에 완전히 회생하면서 이들의 **발빠른 회생 능력이 재조명되고 있음**
 - 금융위기 때 정부에 지분 60.8%를 팔아야 했던 GM이 최근 정부에 팔았던 지분을 매입하여 100% 민간 기업으로 재탄생
 - 포드는 올해 들어 현대·기아차 등 경쟁 업체를 압도하는 14.2%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최고 성장 기업으로 부상
 - 이탈리아 피아트에 팔린 비운의 주인공 크라이슬러도 이제는 모기업 피아트를 먹여 살리며 그룹 전체 수익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
- 금융위기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게 있어서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강한 외부 충격을 계기로 그동안의 방만 경영 실태를 돌아보고, 뼈를 깎는 대수술을 할 수 있었음

< 미국 자동차 업계 부활의 3대 비결 >

	내 용
체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업체들은 금융위기 때 자신들이 경영난을 겪은 1차 원인이 경영 비효율 때문이었다고 보고, 다시 위기가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체질 개선 작업을 시행 •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통하던 GM은 2016년 북미지역 영업이익률을 1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 • GM은 인사·재무 등 지원 부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30%, 자동차의 기본 뼈대가 되는 플랫폼 공용화 비율을 높여 총 10억 달러, 부품 구매 비용을 20%이상 절감하는 등 광범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스피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드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중소형·고연비 차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기존 제품군을 중소형·고연비 차종으로 신속하게 확대 재편 • 또한 경형·소형·소형·SUV·하이브리드·중형의 5가지 차급(車級)에 공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하나의 디자인을 정해 이들 차급에 동일하게 적용함 • GM도 지난 해 출시한 대표 중형차 쉐보레 말리부의 인기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출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는 등 전에 없던 초스피드 대응체제를 가동
급감한 노조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회사가 사업을 확대하고 더 높은 수익성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조합원을 돕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 • 강성 노조의 대명사였던 UAW가 마치 회사와 한 몸인 것처럼 온순해진 것은 회사가 망하면 노조 역시 망한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 • UAW는 시급(時給)이 일반 근로자 대비 60% 수준인 저임금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40%까지 고용해 회사가 인건비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고용 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응

1) '미국車, 5년 만에 부활·3대 비결 있었다(조선비즈, 2013.12.12)를 요약 정리함.

□ 요즘 뜨는 '페이크 패션'²⁾

- 요새는 '옷 좀 입는다'는 사람일수록 앞다퉈 '짜퉁'을 입는데, 소위 1%의 명품을 골라 상표를 교묘하게 바꾼, 이른바 '페이크(fake, 가짜) 패션'임
 - 과거 모방품이 대중적인 브랜드를 딸라 하는 정도였다면, 최근엔 가장 비싼 브랜드로 불리는 최고급 명품 상표를 조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최근 '짜퉁' 인기를 선도하는 것은 미국 디자이너 브라이언 리히텐버그(Lichtenberg)임
 - 힙합 패션에 관심이 많은 그는 마치 음악으로 유명인을 '디스(상대방을 엽신 여기거나 공격한다는 뜻)'하듯, 옷으로 유명 브랜드를 조롱하면서 이름을 알림
 - 그가 만든 가장 유명한 패러디 상표는 '호미(Homies)'. 에르메스(Hermes)를 패러디해서 만든 단어로, 친구라는 뜻을 담은 속어
 - 고양이란 뜻의 '펠린(Feline)'은 또 다른 명품 브랜드 셀린(Celine)을 교묘하게 바꿔 놓은 것
 - 구찌(Gucci)는 부찌(Bucci), 버버리(Burberry)는 버(BURRRR, 브르르 떠는 소리)로 바꿈
 - 미국 가수 리한나, 마일리 사이러스, 모델 한나 베스 등은 이런 다양한 짜퉁 티셔츠를 입고 거리낌 없이 무대에 오르고 또 화보를 찍음

- 이러한 명품 패러디 현상은 과거에는 명품을 맹목적으로 동경한 것에서 이제 명품의 이름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임
 - 뉴욕의 디자이너 브랜드 '리즌 클로딩(Reason Clothing)'도 최근 프랑스 명품 회사 생 로랑(Saint Laurent)을 가지고 노는 또 다른 티셔츠를 선보임
 - 티셔츠 위에 '이브가 없으면 로랑이 아니야(Ain't Laurent without Yve)'라고 새겨 넣은 것
 - 이 회사가 본래 이름이었던 '이브 생 로랑'을 버리고 '생 로랑'이라는 새 이름을 택한 것을 놀리는 내용

- 이러한 신 짜퉁 디자인에 대해 일부에선 '재치있다'고 넘어가지만, 한쪽에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음

2) '구찌 대신 부치 ... 명품을 비트는 짜퉁'(조선일보, 2013.12.16)을 요약 정리함

□ **직원들이 리더를 믿지 않는 7가지 이유³⁾**

- 미국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직원들이 리더를 믿지 않는 이유 7가지를 제시
 - 조직에서 리더라는 직책을 갖게 되면 부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
 - 직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
- ① **자신만의 리더십 스타일이 부족한 리더 (Lack Courage)**
 - 리더가 변화에 맞서 자신만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면서 자리 지키기에 연연할 경우 직원들은 리더를 불신
- ② **직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리더 (Hidden Agendas)**
 - 리더가 사내 정치적 관계에 집중한 나머지 업무의 명확한 목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리더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
- ③ **직원들의 성장을 돕지 않는 리더 (Self-Centered)**
 - 리더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직원들의 성장을 돕기보다 본인의 발전에 치중할 경우 직원들은 리더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기피
- ④ **자만하고 노력하지 않는 리더 (Reputation Issues)**
 - 리더들이 자신의 성과에 만족함을 넘어서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부정적인 평판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며 부정적 평판은 빠르게 확산되므로 리더의 평가에 타격
- ⑤ **일관성 없는 리더 (Inconsistent Behavior)**
 - 리더가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을 반복할 경우 직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인상
- 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남에게 미루는 리더 (Don't Get Their Hands Dirty)**
 - 리더가 지나치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귀찮고 힘든 일에서 빠지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직원들은 리더가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
- ⑦ **직원들에게 관대하고 칭찬할 줄 모르는 리더 (Lack a Generous Purpose)**
 - 리더가 직원들의 수고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시하며 포용력 부족으로 직원들에게 관대하지 못할 경우 직원들은 리더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회의

3) '7 Reasons Employees Don't Trust Their Leaders'(Forbes, 2013.09.12), '성공적인 리더 되려면? "리더를 못 믿는 7가지 이유 보니..."'(조선일보, 2013.12.11)참조

□ 덕필고 필유린

연말이라 이모저모로 바쁘고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올해 부족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연말에 하나 더 해야 할 일은 주위를 둘러보는 일이다. 추운 연말에 몸도 마음도 추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덕을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의 연대와 활력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이다.

연말에 한 지인으로부터 책 선물을 받았는데 『가야금 명인 황병기의 논어 백가락』이었다. 책 이름도 독특하지만, 국악계의 원로이신 황병기 선생께서 논어에 관한 책을 썼다는 점에도 눈길이 갔다. 선생께서 좋아하는 논어 구절 100개를 뽑았고, 그 중심으로 쉽게 풀어 쓴 책이었다. 논어에 관한 수많은 해설서가 있지만, 연세가 80에 가까운 원로 예술인의 눈으로 그리고 인생의 경륜을 덧붙여서 쉽게 풀어 썼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어 해설서들과 차별화된다. 이 책에서도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논어의 이인편 25장에 나오는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은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전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께서 조카 김정옥 교수에게 써 준 친필휘호역시 ‘덕불고 필유린’ 여섯 글자라고 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던 김활란 총장께서도 덕을 베푸는 넉넉한 삶을 강조하셨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넉넉한 사람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덕을 베푸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신에게도 유리한 일이다. 좁게 보지 않고 더 길고 크게 보는 길이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친구들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적들로부터 얻는다.

- B. 그라시안(1901~1958) : 스페인의 작가, 철학자